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8호 [루게 제24571호] 주제 103 (2014)년 6월 7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8돐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8돐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룩군중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만경대혁명학원 원장인 룩군소장 오룡택동지를 비롯한 학원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시고 인사를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원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바라보시며 학원의 장구한 력사의 갈피마다에 아로새겨진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평도자욱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6.6절을 쇠고있는 학원의 교직원, 원아들과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촬영대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순간 하늘땅을 뒤흔드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교직원, 원아들에게 담례를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원아들이 걱정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아버지원수님!》, 《아버지!》하고 목메어 부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라섰다.

움기시던 걸음을 거둬 멈추시고

원아들에게 손저어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손수건으로 젖어온 눈굽을 닦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원의 곳곳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

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을 떠나 만경대혁명학원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 새로 건설한 종합체육관을 돌아보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8돐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8돐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일떠선 만경대혁명학원 종합체육관은 배구, 송구, 풍구, 실내축구를 할수 있는 경기장과 권투훈련실, 육체훈련실, 탁구훈련실, 기계체조훈련실, 사격관 등을 갖춘 다기능체육시설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연건 축면적이 8,000여㎡이고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이루어진 체육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종합체육관은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게 결보기에 크지 않지만 지난 시기 건설공법과는 달리 새로운 방법으로 시공하니 내부가 요란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 종합체육관을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잘 건설했다고 정말 마음에 든다고, 멋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의 만년재부를 하나하나 늘이고 창조하는 재미는 혁명가들만이 느낄수 있는 궁지라고 하시면서 만경대혁명학원 종합체육관과 같은 세계적

인 건축물은 혁명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고 그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당에서만 건설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날 종합체육관에서 진행하는 만경대혁명학원과 남포혁명학원 원아들의 배구와 풍구경기를 보시였다.

경기에서는 만경대혁명학원 선수들이 이겼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원아들이 하나같이 끈결하고 튼튼하다고, 원아들의 모습에서 강성조선의 앞날을 그려보게 된다고, 조선혁명을 대를 이어 더욱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책임일군들에게 혁명학원 원아들은 당과 함께 선군혁명전만리길을 걸어갈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전체 교직원, 원아들은 뜻깊은 조선소년단창립절에 학원을 찾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뉘우치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뜻깊이 이어가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시였다.

본사정지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 회의에서 채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월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 회의에서 채택되였다. 편지는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 회의 참가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전쟁책동을 짓부시며 인류의 리상사회인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령도하고계시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월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이번 총리사회 회의는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 전횡을 반대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연맹이 주도적역할을 해나갈데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두드러진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희들모두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모한 군사적대발책들을 규탄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당신께서 펼치시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 민족중시의 정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라우는 눈부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조선의 이러한 현실은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청년들과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로 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책동, 로골적인 군사적위협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위험한 핵전쟁경계로 치닫고있으며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확대시키고있는 반공화국모략사동은 극단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최후승리를 확신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와 핵전쟁발발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끈질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끊임없는 군사적위협책동을 폭로규탄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민족적연방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성 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어나갈것입니다.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강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당신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 회의 참가자일동
2014년 5월 29일 하노이

김일성대원수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일성대원수회고 베니스사회주의당 위원회 결성식이 5월 27일 요프두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베니스사회주의당 지도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베니스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는 결성식에서 한 연설에서 이민위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한생을 강요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경찬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 서기장으로 베니스사회주의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일성주석회고 별가리아위원회가 5월 29일 쾨피아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별가리아 사회주의당 민족리사회 조직부장 딘코 켈레브가, 부위원장으로 별가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쎬메온 이그나토프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40돐 기념보고회가 5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도의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태동수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63(1974)년 6월 함경남도도 찾으시고 홍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확대회의와 함경남도농업 및 경공업부문 일군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 협의회들에서 화확비료, 비료, 대상설비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단천지구 광산들의 광물생산목표와 도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여러 경공업공장과 광포오리공장, 신포수산업소 부두건설장,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의 투쟁에 적극 합세하리라는것을 다시금 굳게 확인한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에서 제시된 과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함흥지구 화확공업기지와 기계공업기지를 찾으시어 함판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번지도 록 전력적으로 명도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는 도안의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전반적경제에 대한 관리운영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온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도의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련합기업소들의 위력이 더 높여 발휘되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기업소들사이에 생산적연계가 보다 밀접해지고 협동생산이 강화됨으로써 주요지표들의 생산목표가 점령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합흥과 단천지구에서 주체비료론과 비료, 마그네사르링카가 쏟아지고 합흥편지공장과 합흥보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의 생산능력이 월등히 향상되도록 농업부문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어 알곡생산이 늘어났다고 말하였다.

함흥지구 화확공장과 단천지구의 광산, 공장들과 수동, 금야지구의 탄광 등 인민경제 선봉부문에 기초공업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경공업공장에서 슬로있는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고 알곡과 남새, 버섯, 축산, 수산물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생산과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 회의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 지지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 회의가 5월 29일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회의정치보고는 미국의 간섭과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한 정세가 지속되고 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위협과 봉쇄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가 세계최대열점 지역으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까뻍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에서의 공교한 평화체제 확립을 위하여 미국은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무분별하고 침략적인 핵전쟁책동과 모략책동을 무조건 중지하라.

남조선당국이 불신과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극악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성의있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받아들일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청년들과 청년학생들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며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적극 합세하리라는것을 다시금 굳게 확인한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림없어라》노래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진다

각지 소년단원들 6.6절을 뜻깊게 경축

【평양 6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선군조선의 새 세대들이 조선소년단창립 68돐을 맞이하였다.

뜻깊은 이날을 맞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시고 이 땅을 건설할 새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당의 사랑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끓어 넘쳐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소년단창립절을 해마다 국가적인 명절로 경축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후대들에 대한 당의 사랑이 날로 더 뜨거워만지는 속에 명절을 맞는 전국의 혁명학원, 초·중·고등학교, 소년단야영소 등에 있는 원아들과 학생소년들이 첫물도마도를 받아안았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아이들을 위해 세상에 없는 공진도 수산사업소도 일떠세워주고 철마타 맛있는 과일들도 보내주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고 자라는 선군조선의 소년단원들이 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었다.

태양의 품속에서 조국의 최북단 두메산골과 바다머리 외진 섬, 분계연산마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 소년단원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어머니

당의 한없는 미래사랑을 만방에 전하며 새 세대들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처럼 훌륭한 조선소년단을 가지고 있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수백만 소년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조선소년단창립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은 각지의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해님으로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혁명의 피출기를 뜻깊이 이어가시는 우리 당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가 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각 도들에서 진행된 소년단 연합단체대회에서는 학생소년들의 조선소년단입단식들이 있었다.

붉은넥타이를 펴들 날리는 소년단원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지덕체를 결기한 유능한 혁명인재, 강성번영할 선군조선의 기동감으로 역세게 준비해나갈 열의에 찬양되어 있었다.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 태종수동지,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책임일꾼들이 평양미림학원, 평안남도중등학교, 함흥초등학교 등 각지의 학원들이나 소년단창립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하해주었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우리의 집은 땅의 품이라 노래부르며 사랑의 요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원아들의 명랑한 모습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아버지로서 모시어 우리 소년단원들의 미래는 영원히 밝고 창창하리라는 철리를 사랑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평양남도, 함경남도, 자강도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 조선소

년단창립절을 경축하는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들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부림없어라》, 《소년단행진곡》, 《지덕체사랑》 등의 노래를 통하여 아이들을 향으로 내세우는 고마운 체도에 사는 자기들의 행복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사리원시, 초산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열린 학생소년들의 그림 및 솜씨전람회에서는 당의 품속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피워가고있는 재능자들이 훌륭한 그림, 서예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창덕학교, 모란봉구역 전우초급중학교, 대성구역 붉은별학교를 비롯한 각지 학교들에서는 소년단원들의 즐거운 무도회와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이 있었다.

서로 승부를 겨루는 학생소년들의 다재로운 경기들을 보며 교직원들과 학부모들, 각계층 근로자들은 웅얼어 열을 올리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속셈경기, 료안에서 공안고달리기, 사물맞기, 제기차기, 바줄당기기 등 특색있는 종목들이 경축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이날 현대적으로 꾸러진 문수

물놀이장을 비롯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서도 학생소년들의 희열과 광명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터져올랐다.

뜻깊은 명절을 크나큰 환희속에 보낸 전체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 같은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따라 소년단기발을 펴릴 뉘날리며 우리 당의 참된 아들딸로,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준비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다.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로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있는 함흥초등학교원아들



조선소년단창립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 원산시 학생소년들

조선소년단창립 68돐경축 제52차 전국학생소년 예술축전 종합공연 진행

【평양 6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소년단창립 68돐경축 제52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공연이 6일 만경대학학생소년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태동지와 전술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청년부총, 청년동맹일꾼들, 평양시안의 청소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장 《6.6절은 우리의 명절》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3중창과 합창 《김일성원수님에 우리는 행복하여라》, 남중창 《더 높이 부르자 김일성장군의 노래》, 바이올린중주 《그립습니다 못 잊습니다》, 하모니카와 북제창 《혁명가요원곡》, 어은금 독창 《소울수를 더 뵈고싶어요》, 소합창 《너를 사랑해》, 실화중창 《아 꿈만 같아요》, 너

중창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려퍼졌다.

출연자들은 주제적소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한평생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간절한 그리움과 경묘의 정을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그대로 지니시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며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종목들에 넘쳐흘렀다.

순풍곡과 합창 《세상에 부림없어라》, 너중창 《영양까지》, 제단 《사랑의 요람 행복의 요람》,

무용 《해빛밝은 습마장에서》를 비롯한 종목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평행, 태양복속에 희망과 재능의 노래를 활짝 꽃피워가는 행복동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지덕체를 결기한 유능한 혁명인재, 기동감으로 튼튼히 준비해갈 학생소년들의 결의를 반영한 합창곡 《행복의 꽃대문》, 합창 《우리는 김정은장군님의 조선소년단》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중창 《원수님 축복안고 밝은 미래로》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무리에 굳게 붙어 혁명의 피출기를 뜻깊이 이어 강성조선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소년단원들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원수님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상이었지만 학생소년들을 끝없이 사랑하신 자애로운 아버지, 다스린 학부형이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 1년제의 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는 뜻깊은 첫 해를 맞이한 주체 64(1975)년 9월 1일 어머니수령님께서 우리 평양장전인민학교(당시)를 찾으시어 학생소년들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뜨겁게 되새겨진다.

재능의 나라를 활짝 펼쳐가는 새 세대들

지난 수십년간 1만 4천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교실문학과 아동문학상을 수여받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원수님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상이었지만 학생소년들을 끝없이 사랑하신 자애로운 아버지, 다스린 학부형이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 1년제의 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는 뜻깊은 첫 해를 맞이한 주체 64(1975)년 9월 1일 어머니수령님께서 우리 평양장전인민학교(당시)를 찾으시어 학생소년들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뜨겁게 되새겨진다.

말해 하다 우리 교실문학과 아동문학상 수상자들을 평양에 불러 견학도 시키고 총화모임도 크게 하도록 해주셨으며 표창장과 메달도 수여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우리 교실문학과 아동문학상의 제정은 청소년학생들의 글짓기운동을 더욱 고무추진하는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그들은 글짓기능력을 끊임없이 높여 지난 수십년간에 다양한 주제와 종류의 수많은 글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올해에 진행된 제27차 우리 교실문학과 아동문학상 수상자 발표식에서는 10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수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10여년간 《아동문학》잡지에 우수한 작품들을 발표한 학생소년들이 3360여

명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청소년학생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할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서 여기는 절세위인들의 다스린 손길과 깊은 관심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백여명 청소년학생들의 글짓기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글짓기운동은 청소년학생들을 다양면적으로 준비된 혁명의 후배대로 키우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며 그들이 창작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글작품들은 사회주의건설을 떠맡는 온 나라를 기쁘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소년학생들의 창작적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워주시기 위하여 주체 76(1987)년 4월 우리 교실문학과 아동문학상을 새로 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뿐만아니

로써한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지금 교실들이 밝기는 하지만 시원한 맛이 없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들은 밝고 시원해야 한다고, 학교를 새로운 설계대로 건설해주시고, 그러하면서 교장인 저에게 학생들이 찬미를

나와서 이어서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있는가를 물어주시고 나서 곧 학교문을 열고 공부하게 된다는 저의 보고를 들으시고는 학생들이 들어와 공부할 때다 오시겠다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꼭 보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얼마나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 얼마나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에 우리 학생소년들이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동감으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는 것인가.

우리 학생소년들은 앞으로도 따사로운 해님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길에서 소년단원들의 소중한 명절인 6.6절을 백옥같은 총정과 불타는 애국의 자랑안고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이다.

중구역 청년소학교 교장 2중로력영웅 인민공화국 조수복

특파기자

부하를 걸어 약품생산을 계속 늘어나고있다. 5합성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불리한 조건을 이악하게 뚫고나가면서 집단적혁신을 일떠 놓아나고있다. 이들과 함께 노력하는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금리세면 등 수심까지의 보조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마련해놓고 효능높은 고력약과 고력약액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약초 1차가공을 맡은 백관일 동무를 비롯한 1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맡겨진 계획을 매달 넘겨 수행하고있다. 특히 고력약액생산을 맡은 로동자들은 약초의 특성에 따르는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비를 다루며 고력약액생산에서 편익혁신을 일떠 놓아나고있다. 리은희동무를 비롯한 2작업반의 로동자들도 무진, 무관화된 생산현장에서 현대적인 제작방법을 도입하여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고있다. 이들은 고력약액생산을 맡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금리세면 등 수심까지의 보조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마련해놓고 효능높은 고력약과 고력약액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특파기자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8일 김일성경기장에서는 보천보배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통각산팀과 화북팀, 리명수팀과 압록강팀, 평양팀과 경공업성립팀의 남자경기가 9시부터 진행된다.

이날 10시부터 청춘거리 경기장에서 상업성체단과 대령강체육단사이의 코에제조정기, 비행관에서의 장산, 대성산, 회룡, 평양철도체육단사이의 짧은주루속도빙상경기(청년급)가 벌어지게 된다.

평양체육관에서는 14시부터 보천보배상체육경기대회 유술 1급 남자 73kg급과 여자 57kg급 결승경기가 각각 진행된다.

스웨리에특별전권대사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국경절에 즈음하여 잘 울로프 인레트 존 조스웨리에왕국 특별전권대사가 6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장, 조선스웨리에전선협

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협력 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사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스웨리에왕국대사관 성원들

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경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개를 구스타프왕제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스웨리에사이의 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감비아 도착

리수용의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5일 감비아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쿠웨이트 방문을 마치고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쿠웨이트의무성

관계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수리아와 로씨야에 갔던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귀국

에 참가하였던 리봉남의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6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오동철 무역성 부

상과 알렉산드르 페모닌 주조상과 특별야방 특별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재공업부문과 의료기구공급부문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의료품과 의료기구의 가시수를 늘리며 그 질을 더욱 높여야 하였습니다.》

흥남 제약 공장에서

백두산질세워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에 뜨겁게 깃들여 있는 열에서 일하는 높은 긍지와 열의를 안고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심까지 지료에 달하는 의료품생산을 한결같이 펼쳐나갈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국내산 원료에 의한 의료품생산을 계속 높이는 문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을 차례로 풀어나가면서 상비약, 대중약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4합성직장과 2합성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열에서 일하는 긍지와 열의를 안고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심까지 지료에 달하는 의료품생산을 한결같이 펼쳐나갈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국내산 원료에 의한 의료품생산을 계속 높이는 문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을 차례로 풀어나가면서 상비약, 대중약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4합성직장과 2합성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열에서 일하는 긍지와 열의를 안고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심까지 지료에 달하는 의료품생산을 한결같이 펼쳐나갈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국내산 원료에 의한 의료품생산을 계속 높이는 문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을 차례로 풀어나가면서 상비약, 대중약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4합성직장과 2합성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열에서 일하는 긍지와 열의를 안고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심까지 지료에 달하는 의료품생산을 한결같이 펼쳐나갈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국내산 원료에 의한 의료품생산을 계속 높이는 문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을 차례로 풀어나가면서 상비약, 대중약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4합성직장과 2합성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열에서 일하는 긍지와 열의를 안고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심까지 지료에 달하는 의료품생산을 한결같이 펼쳐나갈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국내산 원료에 의한 의료품생산을 계속 높이는 문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을 차례로 풀어나가면서 상비약, 대중약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4합성직장과 2합성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선군대양

절세위인의 확고한 자주통일이지의 결정체

조국통일문제는 의연히 그 해결을 요하는 우리 나라의 가장 절박한 민족문제로, 세계의 눈길을 모으는 중대한 관심사로 되고있다. 내외의 반통일세력은 어리석게도 편이든 정치군사적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이지를 시험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도 6.15의 기치 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족투쟁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역사의 시련과 도전을 겪고 조국통일 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우리 겨레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밝혀준 우리민족끼리리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깊이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길잡이를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온 겨레는 어머니장군님의 불같은 통일지지와 애국헌신의 로고에 의해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이래의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고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동선언은 어디까지나 통일지향적이고 인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것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었는 것인가.

진신시찰의 나날에 힘을 때가 많았고 기리리넘은 그 어떤 즉흥적인 사색이나 탁상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일찌기 조선을 빛내시실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수십상상에 걸친 자주적이고 부강변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어머니장군님의 정력적인 평도는 자주성과 애국심이 강한 우리 민족의 단결력과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자주통일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과 애국의 절단에 의해 우리 민족은 마침내 주제 89(2000)년 6월 분별의 장벽에 파궤가 뚫리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열리는 역사를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평양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확약한 북남공동선언이 엄숙히 발표되었을 때 온 강토는 커다란 환희에 휩싸였다. 6.15 통일시대의 탄생을 장엄하게 알린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삼천리강토에 단합과 통일의 열풍을 안아왔고 겨레는 머지않아 밝아올 통일의 아침을 보게 된 것이다.

이 경이적인 사변은 정령 피눈물의 터에서 새 천년대의 분수령까지 그날의 가슴불꽃을 헤치시며 어머니장군님의 엄령을 꽃피우실 철성의 지지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고귀한 열정과 헌신의 결정체였다.

6.15의 위업을 더욱 전진시켜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나라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평도는 또다시 온 민족과 세계를 경탄시켰다. 주제 96(2007)년 평양에서는 또 한 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이 채택되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자주통일, 평화변명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담은 10.4 선언의 채택은 이 땅위에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되고 부강변영하는 나라를 기어갈 일떠세우려는 어머니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와 철의 신념이 안아온 민족사적사변이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에게 자주와 단합의 길을 밝혀주시며 조국통일의 특정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감사의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의 뜻과 의지가 어떤 조국통일위업은 오늘날 또 한층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께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지금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은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조국통일사상과 리념이 있고 그리하여 한층을 바쳐 마련해주신 선군의 강위력한 힘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의 거센 전진선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탁월한 선군정치가 조국통일의 구상이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평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6.15의 위업을 더욱 전진시켜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나라의 평

탁월한 선군정치가 조국통일의 구상이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평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선군정치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시고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이 채택되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자주통일, 평화변명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담은 10.4 선언의 채택은 이 땅위에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되고 부강변영하는 나라를 기어갈 일떠세우려는 어머니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와 철의 신념이 안아온 민족사적사변이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에게 자주와 단합의 길을 밝혀주시며 조국통일의 특정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감사의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의 뜻과 의지가 어떤 조국통일위업은 오늘날 또 한층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께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지금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은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조국통일사상과 리념이 있고 그리하여 한층을 바쳐 마련해주신 선군의 강위력한 힘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의 거센 전진선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탁월한 선군정치가 조국통일의 구상이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평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6.15의 위업을 더욱 전진시켜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나라의 평

새우베끼스판동토들 기념행사 진행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새우베끼스판동토들이 2일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장에는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4돐, 《조선은 하나다》, 《조국통일을 위하여》라는 글자들이 걸려있고 통일기구가 나뭇가지고 있었다.

주요인 우즈베키스탄조선문화전통《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인원들, 《통일》신문 주필, 녀성회 회장, 동포에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캄보디아방승들이 기념보도물을 하였다.

에프엠 90.5 방송은 《6.15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0년 6월 조선분별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2007년에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 선

참다운 애국의 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은인

모든 생각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은 조국통일에서 지향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해 한몸바칠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참다운 애국의 삶을 빛낼수 있다는 것을 따듯이 일깨워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이 뜻 깊은 말씀은 우리 중심 민족의 중추를 떠안으시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절단코 팔장 내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신행을 기울어오신 그이의 철성의 의지가 비껴갔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격정을 살키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사랑하는 법이며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가능성만 있고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진발이 아니라 하였고 하였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장엄한 투쟁은 겨레의 마음과 뜻,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하는 거창한 위업이다. 서로 다른

전쟁광신자들을 계속 끼고돌다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근혜역도가 군사강제퇴진 김관진님을 청와대에 끌어들이고 동족대결을 추구하고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서기국보도 제1065호를 발표하였다.

김관진님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다는 남조선인민과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고 우풍이다. 김관진님으로 말하면 리명박《정전》때부터 지금까지 피괴국 방부 장관자리에서 오메동안 들고 있어도 전쟁에 미쳐남편 죽이던 악질광부. 무지마치한 천미군사강제이다.

김관진님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다는 남조선인민과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고 우풍이다. 김관진님으로 말하면 리명박《정전》때부터 지금까지 피괴국 방부 장관자리에서 오메동안 들고 있어도 전쟁에 미쳐남편 죽이던 악질광부. 무지마치한 천미군사강제이다.

김관진님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다는 남조선인민과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고 우풍이다. 김관진님으로 말하면 리명박《정전》때부터 지금까지 피괴국 방부 장관자리에서 오메동안 들고 있어도 전쟁에 미쳐남편 죽이던 악질광부. 무지마치한 천미군사강제이다.

김관진님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다는 남조선인민과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고 우풍이다. 김관진님으로 말하면 리명박《정전》때부터 지금까지 피괴국 방부 장관자리에서 오메동안 들고 있어도 전쟁에 미쳐남편 죽이던 악질광부. 무지마치한 천미군사강제이다.

김관진님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다는 남조선인민과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고 우풍이다. 김관진님으로 말하면 리명박《정전》때부터 지금까지 피괴국 방부 장관자리에서 오메동안 들고 있어도 전쟁에 미쳐남편 죽이던 악질광부. 무지마치한 천미군사강제이다.

괴뢰들의 반인륜적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피괴패당이 조단당한 우리 선원들을 억류해놓고 《귀순이니 뭐니 하는 게나발을 불어대고있는데 정말 격분스럽다》고 지냈다.

문건대 그들이 자발적으로 남조선에 갔는가, 고기잡이하러 바다에 나갔다가 조단당한 선원들이 아니라. 그렇다면 마땅히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국제법으로 보나 인도주의정신에서 보나 그것은 혼혈 어지조자였다. 그런데 피괴들은 당치않게도

불합종항 김관진과 같은자를 돌려보내지 않고있다. 이 세상에 가장 우월하고 그 무엇보다 바랄수 없는 소중한 사후의제도들 따나 단 살도 살수 없는 우리 인민이다. 바로 그 세속 그 고마운 제도를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이다.

피괴들이 우리 인민의 이익과 같은 신념을 알기나 하기에 그따위 너드리를 늘어놓는가. 더우기 사람 못살 인간성지유, 인권의 불모지인 남조선에 누가

조단당한 선박 선원들을 인도주의정신에서 구제해주고 방조를 제공하며 그들의 조국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초보적인 관례가 아닌가. 무지스러운 남장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것을 모른다 할수 있는가.

한피해를 이은 동족이 날마다